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관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4)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895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가는 1999년 오는 2000년 · ‘그날’을 향해 경주하는 교회로

1월 1일(토) 9시와 11시에 신년예배 다음주일(1월 2일)엔 2000년 첫 성찬예배

오늘은 1999년도 마지막 주일이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기말적 재해들과 수많은 미결된 과제들을 고스란히 안고서 새천년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낙관적 기대감에 들떠서 이 땅의 역사가 점차 맞이할 어둠과 슬픔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힘써 전리의 더 위대한 군세 서서 흔들림이 없이 ‘그날을 향해’ 경주해야 하겠다. 특히, 분주한 연말 연시에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위한 영적 준비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다.

연말연시에 진행될 교회의 주요 행사들은 아래와 같다.

연말연시 예배 및 주요 행사 안내

12월 26일(주일) 4부예배시	예배 · 안내 · 헌금봉사자, 아멘 · 시온 · 실로암찬양대원, 크로마하르 · 만도린연주대원, 남성중창단원 임명
12월 26일(주일) 찬양예배시	제6차 학습세례식
12월 26일(주일) 찬양예배후	특별제직회, 은퇴 및 근속자 포상
12월 31일(금) 오후 7시	금요집회
	* 송구영신예배는 없음
1월 1일(토) 오전 9시, 11시	신년예배
1월 2일(주일) 15부예배시	성찬예배
1월 2일(주일) 찬양예배후	공동의회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00년 1월 2일
찬양예배 후

내용:

- ① 1999년 결산 및 2000년 예산심의
- ② 원로장로 추대

일반찬양대원과 독창자를 위한 제4회 전국찬양대원 성악강습회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 찬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전국찬양대원 성악강습회가 2000년 1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개최된다. 보다 영적인 찬양, 배워 익숙한 모습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전국 교회의 찬양대원(고등학교 이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 강습회는 300명 선착순이며 강의 내용은 총 10시간의 실기지도, 호흡법, 발성법, 성가독창 문헌, 가창법, 교회력과 음악행정 등 이론강의, 그리고 영성훈련 등이다. 강사는 현재 충현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음악 지도자 및 목회자 등 총 30여명에 달한다.

참가신청: 소정의 참가신청서 / 4원한의 참가비
참가접수: 2000년 1월 15일(토)까지
문의: 충현교회 찬양위원회(전화: 552-8200 / 교한 259,260)

교정전도회 신촌중학교(초·중·고)와 겨울성경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겨울성경학교기간: 2000년 1월 10일 - 14일
모집대상 교사: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면 누구나(대학, 청년부 지체들 환영)
문의: 교정전도회(본당 103호 / 전화: 교한 207호)

교구모임장소 변경 오늘(26일)부터

오늘부터 교구모임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교구	관할 지역	모임 장소
1	강남구(역삼1동, 역삼2동-한서지역)	교육관 205호
2	강남구(논현동, 삼성동,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교육관 314호
3	강남구(역삼 2동-개나리, 영등, 진달래), 도곡동, 대치동	교육관 201호
4	서초구(서초동, 방배동, 잠원동)	교육관 407호
5	강남구(개포동, 포이동, 일원동, 수서동 등), 서초구(양재동, 우면동 등)	교육관 212호
6	송파구(송남동, 오륜동, 신천동을 제외한 지역)	본당 우측
7	송파구(송남동, 오륜동, 신천동), 강동구, 한남시, 광주시	교육관 307호
8	성동구, 광진구	매추라기홀
9	노원구(상계동 제외), 동대문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북지관 지하2층
10	성북구, 노원구(상계동), 도봉구, 강북구, 의정부, 동두천	본당지하 아멘홀
11	중구, 용인시, 용문구	메디니홀
12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고양시(일산)	본당지하 호산나홀
13	강서구, 양천구(신원동, 신정동), 인천시, 부천시, 김포, 시흥시	교육관 414호
1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목동APT), 광명시	본당지하 임마누엘홀
15	관악구, 동작구	영아부실
16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안산시, 천안시, 평택 등	교육관 107호
17	성남시(분당), 용인(관교)	북지관 지하1층
18	국제교구	
19	중, 고, 대, 청년 단독세	

남녀전도부 총회

일시: 12월 26일 오후 3시
장소: 갈릴리움
대상: 남녀전도부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성찬준비위원들께 알립니다

성찬준비위원들은 1월 2일 성찬예배 준비를 위해, 신년예배(1월 1일 토요일)는 1부 9시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후 준비실에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립니다

대학부 집회시간 변경

1월 1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움

대학부 집회 시간이 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대학부는 집회와 성경공부, 소그룹 활동과 행사들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집회 시간을 토요일로 변경함으로써 강사와 시간 사용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 특히 대학부는 주일마다 교회학교와 찬양대 등 교회 각 부서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길을 모색해 왔는데 금번 시간 변경으로 봉사 활동 기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부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도표로 보는 1999년도 충현통계





김창인 목사

진리를 위하여 삽시다

(고린도후서 13: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1. 세상이 따르는 원리

세상은 옛날부터 있는 여호와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다나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나그네 생활 험한 길 가는 동안 위험한 길도 많고 피곤한 길도 많고 망신스러운 실수도 많은 것이 인간들의 일생일 것입니다. 따져보면 잠깐 지나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남은 생이 얼마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되어 가는 형편을 보아도 말세 지말이 다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된다고 했는데 요사이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되었습니다. 게다가 Y2K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 같습니다. 인간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서 기계를 만들어 놔는데 그 기계를 조금 잘못 쓰면 비대한 큰 사고가 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개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대로 살면 정당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무시하고 기본이나 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 기본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이 난무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조금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지식, 얻은 재산 가지고 음란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 바치지도 못 하고 부모를 섬길 것 섬길 줄도 모르고 가난한 자 구제할 것 없는 캄보디아도 내 돈 내 돈 내 돈도 내 돈도 내 돈이 하는 식으로 그저 모조리 자기 주머니에 넣고 버리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2.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진화 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이 지방에

서는 원리이지만 저 지방에서는 원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라 살아도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1)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변해도 괜찮지만 진리는 완전한 것이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란 하나님께 영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박사님이라 해도 인간은 얼굴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활도 변합니다. 그리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우리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땅에서부터 진리를 배우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야 합니다. 그러면 대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땅에서부터 천국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 복을 많이 받다 주 에는 주신 평안함을 충만하다"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해도 인간적으로 최고의 복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안이 있겠어?"라며 평안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도하러 다닐 때에는 누구의 집에 들이가지도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 중의 복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인간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주는 것 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평안이 평안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 결국은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2)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세상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에덴동산에서 인간들을 내놓으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 계획을 하시고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주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서 한 마디만 말씀하시면 천하만물이 이에 복종합니다. 풍량이 일어나는 바다의 물결을 보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하시니 잠잠해집니다.

셋째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절명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넷째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을 위하여 오실도 기도를 주시는 제사장이고 오실도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오실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심판장이시라는 말입니다.

(3) 성도는 왜 진리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악마에게 결박을 받아 지옥의 불에 멸망받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사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협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리를 배웁시다. 진리를 따라 순종합시다. 진리를 따라 지킵시다.

신용을 사람에게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지킵시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로부터 온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씻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진리대로 순종하여 믿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4) 진리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진리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길 힘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경계하는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그대로 정직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힘이 모자라오니 진리대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진리를 따르며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따라 갑시다. 진리를 따라가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3. 결론

성탄절과 새 천년을 앞에 놓고 무슨 소문이 난무한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도 좋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영생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홍해도 육지처럼 갈라지고 어리고도 평지처럼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지난날 진리대로 살았는지 감사하고 더욱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하여 교만하지 말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조심하고 겸손히 충성하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리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권면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땅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 선관 목사

새 언약의 축복

(누가복음 22:19-20)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 떡 먹은 후에 잔도 이와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모인 것은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음료를 나누는 그의 놀라우신 초창에 기쁨으로 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과 재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중요성을 목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배부신 그 그리스 회생 곧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 속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목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념할수록 우리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큰 눈물과 위대한 기쁨이 교차하는 그의 임재 안에서 거룩케 되고 성결케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은 자들

먼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 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해있는 누가복음 22장의 상황은 다소 무겁습니다. 유월절 곧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던 그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습니다(2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가장 행복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430 년 동안 계속되었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끝낸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는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의 마음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축제의 기쁨이나 예배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화자괴 기만 그림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의 마음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열두 중에 하나인 거짓인자 바르사는 유다에게 하인 이 들어간다”(눅 22:3).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는 새 언약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무렵,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눅 22:15-16).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둔 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는 그 시간을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까지 사실은 먹지 않았겠다고 하면서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 떡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20).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큰 눈물과 위대한 기쁨이 교차하는 그의 임재 안에서 거룩케 되고 성결케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을 이루는 결정적인 전 경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으심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기록에 다소 다른 것은 흥미롭습니다. 마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는 좀 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마 26:28, 눅 22:19).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특별히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라야 그 감사와 더욱 의미심장하게 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주신 회생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주인의 위치에서, 무덤이 아니라 엄숙하고도 진정한 교제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취하여 기도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는 그것이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임재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회생의 사랑에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축복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6:54-56).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한 희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 성찬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육신은 찢겼고 그의 피는 흘려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선결한 피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죄없이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심은 우리를 향한 진심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고통과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절한 슬픔으로 나타난 그의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개인적인 은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 놓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맡겨 드림으로써,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짐으로써, 역사하시어 일어난 성경을 가진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그의 회생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된 소망과 행복과 영원한 미래를 목상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기쁘고 놀라운 성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개인이 예수님께서 초창하시는 십자가 아래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불타오르게 그를 모셔들이십시오. 아멘. ■

곧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끝날까지 힘껏 건널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놀라운 이자리

이제 이 성찬 기도의 영적인 측면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리라”(요 6:51)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예파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의 생명이 없느니라”(요 6:53)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99 직능전도 결산

교정전도회



옛사람이 변화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현 교도소 사역

1999년 한 해 동안 교정전도회가 자매 결연한 몇몇 교도소를 전개했던 교도소는 청송제1·2·전주·대구·공주·청주·군산·원주·순천·영등포교도소, 춘천

신촌중학교, 천안소년교도소, 희망대교도소(강호원), 청송제1·2관호소 등 15곳이다. 사역팀(2인 1조)이 이들 교도소의 제소자들 중 10-12명과 연결되어 매달 방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여 왔으며, 교도소속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도집회를 실시하였다. 청송제2감호소, 원주교도소에서 새롭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영등포교도소에서는 처음으로 전도집회를 가졌고, 소그룹 성경공부도 2팀이나 더 늘어나는 등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욱 늘어났다. 더욱이 금년 사역 중 특이할 만한 것은 교구와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교구직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열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정전도회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교도소에 성경을 보내자는 글을 읽은 여러 교인들과 전사회가 협력해준으로 사역에 더욱 힘을 얻게 되기도 했다.

집회를 통해 참작자 절반이 넘는 수가 결신하기도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소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이런 사역을 통해 제소자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회원들의 간증이다. 또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종교단체에서 신도를 목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지만 기독교만큼 이들을 변화시키는 종교는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절감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 왔다. 실제로 교도소내에서도 문제만 일으킨 제소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놀랍게 변화되어 복역기간을 단축받기도 하고 모범수로 출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전도회



2020운동 동참으로 입대자 양육에 힘쓰는 한 해

군전도회는 올 해도 전종세례식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그 중에서도 10월부터 2020운동에 동참하여 실시한 군 입대자 양육 사업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 사역은 교회주변에 거주하는 입영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소 시절부터 재대입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담, 심방, 선물보내기 등을 실시할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도 연락하여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150마일 전선과 잇닿아있는 부대 대부분을 거의 누비다시피하면서 심방을 다녔다. 군전도회에서는 특별히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각 교구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 재개되는 이 운동을 위해 각 교구의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전방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랑의 온차 나누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전했다.

실업인전도회



'영적, 물질적 119'로 불러주세요

1999년 한 해 동안 평신도 선교사 후원(독일·양한호, 우크라이나·이희진), 미자립 교회 및 불우 이웃가정 자녀의 장학금 지원, 농어촌 교회 전도사역을 위한 침술팀 운영 및 지원(매월 실행) 선교 사역 등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예배다부 사랑부, 밀알의 집 후원을 비롯한 교회 각 부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지 않는 크고 작은 도움의 요청에 기도와 헌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업인전도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매주 목요일 새벽기도회와 기도모임과 지난 IMF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이기 시작한 주일 오후 기도회에서의 실업인, 군, 교정, 경찰 전도회 회원과 여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덕분에라고 한다.

2천년에는 위임목사님의 목회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교회의 5대 목표에 맞추어 전도와 구제, 세계 선교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회원의 자질을 엄격히 하여 남, 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실업인원만의 조직을 목표로 하며 매주 4-5백명의 성도가 참여하고 있는 주일 오후 3시 기도회(갈릴리움)의 불씨가 온 교회로 확산되어 하나님과 만나 문제의 해결을 얻어내는 기도의 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용전도회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가위



99년도 이미용전도회의 최고의 결실은 우선 농어촌 전도를 꼽는다. 연인원 99명의 회원들이 11개 교회에 파견되어 16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다이나믹 농어촌을 격렬로 방문하여 전도한 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추후 봉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두발봉사를 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복지관의 협조하여 복지관 미용실에서 교회 주변의 불우 이웃들을 돕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등촌동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호공회와 연합하여 봉사하고 있다. 또 전문적인 기술자를 영입하여 회원들의 재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농어촌 전도시에 이 미용팀을 필요로 하는 교구에 회원들을 파견하여 교구와 동행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며 예배다부도 활동 대상으로 확대하여 봉사를 예정이다. 물론 농어촌 전도지의 추후 봉사도 더 많은 교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생각이다.

이묘전도회



전도 및 선교 사역의 의료 지원

올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면, 대외적으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일 의료상담, 외국인 근로자 건강

상담 등이 주축을 이루었고, 대외적으로는 농어촌 전도사역 등을 위한 의료지원사역과 수당, 캐나다, 파키스탄, 몽골 등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을 위한 단기의료선교사역, 그리고 단기교선교단과 더불어 행하는 의료지원사역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에도 단기의료사역팀이 수당선교를 위해 떠난다. 내년도에는 해외선교사역을 계속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무의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신실한 의료인 성도들(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학원전도회

결실아동 돕기 앞장서



빛으로 들어온 천안소녀 소외된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소금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학원전도회는 99년 한 해 동안이다. 다가오는 2000년에 대한 각오와 소망이 더욱 남다르다. 99년 한 해 동안 학원전도회는 여름과 겨울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 시 문제 학생 및 청소년 상담에 관한 세미나와 상담 강의를 개설, 기존의 사회 봉사자 상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인성적 문제뿐 아니라 불신앙으로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까지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방법을 나누며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교구 내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결실 학생들을 파악 그들에 대한 식사 후원 및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교원 출신 및 학원 관계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결실가정 학생 초청 전도 및 심방, 상담에 관한 다양한 강좌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돕고 있는 12명 가량의 결실 학생 이외에 각 교구 내 남녀 전도회와 연결하여 50명 이상의 결실 학생 식사 후원 및 복음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전도회

15만 경찰을 품고...



15만 경찰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는 경찰전도회는 올 한 해도 전·외경을 포함하여 모든 경찰들을 품었다. 경찰청교회에서의 부활절 전도집회를 시작으로 춘천시 중도, 3·4기동대, 송파경찰서, 충주경찰청교회를 찾아다니며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들을 통하여 456명의 결실자들이 생겼다. 그 후에 문서를 통하여 관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잊지 못하여 내년에는 좀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중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많은 곳들을 다니며 전도집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경찰 현직 중장년 후임과 인민경찰수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집회를 갖을 예정이다. 서울연교 모두가 2000년 한 해에도 많은 기도와 재정적인 면이나 같이 활동회원으로서나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지각 안하기 캠페인 돌아보기

예배 태도는 물론
참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간다

송원 석(전도사, 초동부 지도)



우리 교회의 오대 목표 중 첫번째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신령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을 보더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배시간에 울리는 핸드폰의 벨소리, 졸음, 지각, 등은 어떤 경우 자연스럽게까지 여기게 되었다. 교회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예배시

간에 너무 쉽게 지각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부터 제1교육위원회 산하 영아부에서 중등3부까지는 지각 안하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초동부의 경우 10월 한달 동안의 홍보 기간을 거쳐 지각하는 학생을 파악한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11월 첫 주일에는 전체 출석인원의 30%를 넘는 110명이 지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지각 이유는 대부분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이유였다. 즉 3부 예배에 맞추어 11시까지 교회에 오는 부모님들과 동행하다보니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두 가지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부모님도 교회에 일찍 오셔서 기도

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것과, 그것이 어려우면 아이만이라도 일찍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홍보는 주효했다. 처음 조사에서 110명에 달하던 지각생이 1개월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1명까지 줄어든 것이다.

주일 교회학교 학생들은 달라지고 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잔다. 또 부모님에게 지각하지 않고 혼자 교회에 오고 있다. 부모님 때문에 지각하게 되면 계속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

학생들의 노력과 함께 교회학교 교사들의 열심 역시 감사한 것이었다. 신생님들은 계속 지켜보는 학생들의 집을 주일 아침 직접 방문하여 학생을 직접 데리고 오는 열심을 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지각하지 않는 부서를

만들어 간 것만이 아니다. 일찍 교회에 온 아이들이 열심히 찬송하게 되고 예배의 태도도 좋아지고 있다. 전도에도 더욱 힘을 쓰게 되고 참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들 역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지각 안하기 캠페인은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교회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운동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말 말 말

선생님들의 이런 말 학생들에게 상처요

-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더니 "넌 그런 것도 모르냐"라며 무시할 때
- 간식을 먹으려고 잔뜩 기대했는데 "간식 없다"라는 말.
- 장난삼아 "왜 차별해요"라고 했는데 오해하며 화낼 때
- 친구랑 오랫동안 만나 얘기했는데 "넌 교회에 놀러왔니?"라는 선생님의 말씀
-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라면은 몸에 해롭다"라는 말로 대신할 때
- 그외에도 "넌 집은 어떤 집안이길래 이 모양이니, 너 같은 아인 처음 본다."
- "넌네 부모님 누군지 참 궁금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말 선생님에게 상처요

- 열심히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 "아저씨가 된대 그래요?" (수원교회 화강실에서 이장한 것?) 하던 학생들이 들었을 때 선생님인 줄 알면서 하는 말.
-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안하고 무시할 때
- 전화로 교회 언다고 하고 안을 때
- "오늘 빨리 끝내 주세요"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하는 말(며 시에 끝나요? 친구 만나러 가요?)
- 가르칠 건 다시 물어볼 때 "뒤요?"라고 대답할 때

학생들의 이런 말 선생님들엔 기쁨이요

- "선생님 보고 싶어요"
- 한 학년 올라간 애들이 "작년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말
-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 못나와서 미안해요.

많은 소중한 순간이므로 잘 이용해 보세요.

(중동2부 기자단)

내가 정치가가 되고 싶은 이유

김상혁(중동3부)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훌륭한 부모님과 선생

님들, 그리고 좋은 누나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공부도 잘하게 해주셨고 운동도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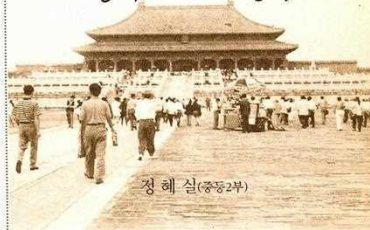
저는 다윗왕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에 관한 만화영화와 책을 많이 본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양을 뱀수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범죄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 부르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왕처럼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잘 돌볼 겁니다. 그러나 다 필요없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찬양받기 위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을 주셨는데 신교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할 것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제게 주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항상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최고가 돼서 영원히 주님 품에 누울 겁니다.

저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저는 Jesus Mania가 될 것이고 천국원군이 될 겁니다.

중국에서의 생활



정혜실(중동2부)

내가 이 글을 쓰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조그마한 중국생활을 토대로 몇자 적어보려 한다.

우선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신기했던 학교생활에 대해 적어 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월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중국에서는 9월 말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학기 늦은 셈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오전에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로 와서 오후에 4교시를 하고 나서야 그날 하루 수업이 끝난다. 2교시가 끝나면 운동장에 나가서 맨손체조를 한다. 처음에 할 때에는 잘 몰라서 나 혼자 하우절거림 많이 부끄러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기한 점은 교복이다. 우리나라의 교복과는 달리 그곳의 교복은 마치 체육복 같다. 딱 보면 '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다. 처음엔 '저 교복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입지 않고 초하하는 월요일만 입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중국학교 애기는 여기서 마치고 중국에서의 신앙 생활을 적어 보겠다.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소수의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짓거나 주권처럼 행세하며 신앙 생활을 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외국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해서는 안된 일을 할까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곳은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는 신앙 생활이 힘든 중국을 위해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할 뿐이다.



내 입의 찬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김선영(8교구, 권할)

좋아하는 찬송이 뭔가요?

누군가 이렇게 내게 물을 때면 대답할 말이 없어 "찬송은 다 좋지요 뭐" 라고 말을 하곤 했다.

그분이 나에게 어느 찬송에 가사가 이리저리하고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좋다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내 신앙에 지침이 될 만한 찬송이 하나 없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할 찬송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이 잘 부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로 찾아보았다. 아마도 혼자만의 것을 찾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찬송이 341장이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로우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오래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제시키기 위해 부르고 또 부르는 노력을 했다.

어느 순간 가사에 눈을 두고 있노라니 지금 내 행동에 대한 한심스러움이 밀려왔다.

나를 부르신 주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날 기억하신다는 내용을 보면서 보이는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웠다.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또 한번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형식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찬송을 대할 때 기쁨 주심을...

공중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양선자(자녀사, 1교구)



나의 어머니는 참으로 기도를 잘 하셨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도 교향의 교회에서는 "기도대장"이라는 별명을 전설처럼 간직하고 계신 어머니. 유망시절도 마땅찮던 시절에 온 교회당이 저렇게끔 울릴 만큼 힘찬 음성으로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은혜로운 공중기도를 물 흐르듯 유연하게 하시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그의 딸인 나는 어떤가?

기도 차례를 앞둔 한 주간은 마치 풀기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든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주님! 기도를 못하겠고 살짝 빠지면 안될까요?" 해보기도 하고,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처럼 의욕이 앞서 설레기도 한다.

하지만 공중기도라는 것이 피해서 지나가거나 누군가에게 채점받는 일은 아니지 않나. 많은 성도를 앞에서 예배시에 하는 기도이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선은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그런 까닭으로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울먹이는 울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또 기도문을 적어보면 보다 더 미려한 문장으로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적은 기도문을 몇 번이고 낭독하며 외우다 보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막상 기도시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가. 하나님을 아배(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내 수준대로 기도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빠(하나님)! 제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잘 아시지요? 보장되었는 저를 딸이라 불러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별로 아빠 마음에 드는 딸이 못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내 맘대로 살면서 자꾸만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것 못שת주세요. 아빠의 뜻을 따라 살아가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제 뜻을 따라 주셨으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빠! 어리석은 딸을 용서해 주세요요. 이렇게 쓰다보니 내 영적 수준이 아직은 유치한 어린이야 정도인 것 같다.

지금도 기도 차례가 되면 눈물 시험처럼 어렵게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기도대장이었던 나의 어머니처럼 기도를 드리게 될까?

은퇴자로 인터뷰 은퇴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40여년을
한결같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

◁ 김경철 장로

◆ 은퇴를 앞두고서 느끼시는 첫 번째 감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철 장로 : 돌아보니 시무장기로 사역해온 지난 20년 8개월의 세월이 너무나 잠깐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 다 못하고서 물러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환창 장로 : 저는 결혼하면서 곧바로 총현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무장기로 사역한 기간은 이 달까지 16년 2개월입니다. 저 역시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다 못하고 마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경철 장로 : 일단 지난 4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주일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예수 믿는 것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유병재 평신도전교사님이나 이동규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요.

송환창 장로 : 저는 교회적인 여러 고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에 항상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배후신 하신다는 은혜가 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결혼할 때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점에서 장로분을 제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못다한 일을 남겨두고 은퇴하시는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일들을 더 하고 싶으셨습니까?

김경철 장로 : 저는 6·25때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교회에서 시작한 봉역전에도 단 한번도 빠짐이 없이 동참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대로 봉역전역들을 계속 하면서 한방 진료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강당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도 봉역을 다녀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미 배후신
은혜가
제게 넘쳐납니다"

◁ 송환창 장로

일정히 잘하셨습니다.

송환창 장로 : 저는 개인적으로 분주하게 지내으면서 실제로 전도활동 등에 열심을 내지 못해 왔습니다. 그 면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신교원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단기선교에 동참하여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는 중 깨달은 면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소회가 되면 김경철 장로님과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소망부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 1999년을 보내며 ...

"우리의 연수가 침실이요 강건한편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 나의 주의 돌림을 알며 주의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데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 90:10-12)

지체들 소식

초등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자리잡아가

12월 5일은 지각없는 주일로 정해 놓고 지키기로 하였는데 초등부에서는 지난 11월 1달 동안 계속해서 지각생을 조사한 결과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11월 첫 주에는 지각생이 120명이 넘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69명으로 거의 반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각이 없고 결석도 없는 반이 2반이 나왔는데 4과 4반(이계혁 선생님)과 5과 8반(김순섭 선생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고 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위한 결과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학평 평가를 해서 이제 99년도를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통신원)

유년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유년부 친구들 성만찬이예요. 벌써 1년이 지나 우리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네요. 2학년 언니, 오빠들은 초등부로 올라가고 포병이 1학년들은 몇 주만 지나면 유치부 동생을 맞게 되요. 또 부장 장로님이신 기제학 장로님은 중동3부로 가시고, 황의만 장로님이 우리 유년부 부장님으로 오시죠. 그러나 유년부 친구들 항상 기억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헌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정지혜 통신원)

유아부

사랑, 충성부 어린이들
오늘 예배 후 유치부로 갑니다!

유아부 사랑, 충성부 어린이들은 오늘 예배 후 유치부로 갑니다. 어린아기로 유아부에 온 것이 어찌 감동케 벌써 끝이 자라서 언니, 오빠가 되었어요. 끝을 익혀서 주보에서 선생님 이름 찾는 게 취미인 정우이, 항상 제일 일찍 오던 민태, 인형같이 귀여운 해민이, 아무진 하은이, 항상 웃는 얼굴이 다른 사람

나의 기도
감당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염미숙

(권사, 2000년 20권사 제4지회장)

주여, 어찌 하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제 자신 부족한 것을 잘 아는 저는 멀리서 아버지 앞에 뭇를 꿇고 기도드립니다.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부족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당할 만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도 주시옵소서.

권사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더욱 협력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로 성령 충만의 결실과 빛으로 환하게 비추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기쁜종개 해주던 태인이, 양보 잘하는 하은이, 종당새 같은 충성이, 사랑스러운 그 자체인 지은이, 멋진 명철이, 모두 모두 얼마나 지혜롭고 예쁜 아이들이지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떠난 빈자리를 새로운 얼굴들이 채워졌지요. 유치부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실 것 믿으며 유아부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멀리 있습니다. (임미순 통신원)

영아부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그 동안 전도사님, 장로님 이하 모든 선생님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아부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를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듯이 모두가 주를 협력하여 주님의 성전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구일을 맡으시며 영아부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그간 3년 동안 한참 밥을 같이 먹으며 기쁨과 슬픔을 때를 함께하셨고 오직 성령적으로만 우리의 본이 되셔서 모든 교사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도 영아부 교사 모두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며 장로님께서 영아부에 정성을 들린 만큼 우리 영아부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혜경 통신원)

물·매·들

저마다의 빛깔

정연 회(집사, 중동2부 교사)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으로 보여 주신 무지개의 빛깔을 일곱 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지개를 이루는 무수한 빛깔을 단 일곱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언어 표현 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어떤 현상을 불연속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다. 무지개의 색깔은 빨강, 파랑으로 선을 긋듯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빛깔도 일곱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수한 빛깔의 무지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빛깔을 주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가지의 빛깔을 표준으로 정해두고 그 색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며 그에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전체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가장 조화롭게 만들어 주신 저마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일을 왜 무엇 때문에 꺼려하는가?

무지개를 이루는 색깔 하나하나가 영동하고 고요하듯 아름답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빛깔을 잘 드러낼 때 공동체 역시 아름답다.

저마다의 위치에 서 저마다의 빛깔도 존중하며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절묘한 자연을 보라. 무수한 빛깔이 빛내이는 아름다운 하나! 우리도 이처럼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이형 주(집사, 7교구)

하나님 감사드려요.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신앙교육 받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육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렇게 한 평생 직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육개월 전 하나님 만나려 떠나셨네요. 육신의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영의 아버지가 계시니 두렵잖아요.

어떠한 악조건의 터널 속에서도 빠져 나이가 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자부심으로 두려움 없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려요.

소망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밝은 빛 보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이 미천한 죄인 위에 한 번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렇게 보내 주신 것 감사드려요. 그 쓰러진 아픈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 주심 감사드려요. 그 다리를 건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조심하여 건너 갈게요. 그 다리가 흔들릴 때는 아버지에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 주시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감격 놀라 생각하니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길 없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합작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나를 놓지 않아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요. 그래서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울면서 매를 쓰면 다 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기도는 약보다 더 무섭대잖아요. 불가늠을 가늠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이 나는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니 항상 죄인으로 살았어요. 1999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사명 소망부 교사로 호산나 한양대원으로 주안중동 통신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명자로 부끄럽습니다. 채 천년도 안 어떤 사명을 주시든 좀더 성숙된 신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할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적어도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길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 가진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셨더라 하시는 책망받지 말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도 내게 맡기시리라 하시는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1999년을 아쉽게 보내고 아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하나님께 띄어 드립니다. 아멘.

